질투, 사랑의 진리와 기만

: 스완의 사랑

양운덕

***사랑의 진리**

프루스트의『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사랑이라는 주제로 어떻게 조명할 수 있을까? 질투와 사랑에 뒤얽힌 진리, 사랑의 진리에 대해서 어떤 점을 밝힐 수 있을까? 철학자들은 진리가 보편적이어서 개별적인 경험을 넘어서고, 숭고하거나 선하다고 본다. 그렇다면 '사랑의 진리'를 해명하기 위해서 이런 진리관의 연장선상에서 보거나 그것을 적절하게 변형하면 충분한가?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른 관점에서 파악해야 하는가?

사랑을 통해서 다른 진리를 찾거나 진리의 다른 본질을 파악할 수 있는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진리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사랑은 감정의 문제이므로 진리 같은 것은 불필요한가? 그렇지 않고 사랑의 진리가 문제라면 이 진리는 어떤 조건에서 어떻게 드러나고, 그 진리를 추구하려면 어떤 경험이 필요하고, 어떤 능력이 있어야 하는가? (예를 들어서, 진리를 이끄는 호기심과 경이로움은 자발적인 것이지만 사랑의 진리는 연인의 숨겨진 무엇을 탐색해야 하고 피치 못할 사정에 이끌려 진리 탐구에 나서도록 강요 받는다. 또한 진리가 보편적인 사고 능력과 지성을 요구한다면 사랑의 진리는 연인의 모든 행위와 말들을 기억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을 요구한다. 진리가 선한 것이라는 믿음처럼 사랑하는 두 사람에게서 선한 동기와 선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가?)

사랑에서 질투는 어떤 작용을 하는가? 질투 없는 사랑이 있을 수 없으며 질투는 사랑에 본질적인 것인가? 아니면 질투는 사랑의 한 속성일 뿐이거나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가? 질투 없는 순수하고 충만한 사랑을 상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질투하지 않는 사랑이야말로 성숙한 사랑 방식인가?

이런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스완의 사랑'에 나타난 몇 장면을 함께 읽으면서 프루스트가 사랑을 어떻게 주제화하는지 살펴보자.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1부인 『스완네 집 쪽으로』의 후반부는 스완의 사랑을 다룬다. 작품의 다른 이야기가 화자의 경험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재구성하면서 1인칭 서술자를 상정하는 것과 달리, '스완의 사랑'은 3인칭 관찰자 시점과 스완의 내면세계를 응시하는 작가의 관점을 혼합해서 스완과 오데뜨의 사랑을 관찰하고 '재현'하는 형식을 택한다.

*** 오데뜨의 창문 앞에서: 진리 욕망과 아는 즐거움-고통**

사랑의 진리 탐구와 관련해서 오데뜨의 창문 앞에서 벌어지는 흥미로운 장면을 살펴보자.

스완은 오데뜨를 주로 밤에 찾아가곤 했다. 그런데 한번은 낮에 여유가 있어서 그녀 집에 들렀다. 초인종을 눌렀더니 인기척이 들리고 발자국 소리가 나는데도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그는 기다리다가 집 뒤편으로 돌아가서 창문을 두드리며 이름을 부르지만 창문도 열어주지 않았다. 한 시간 뒤에 다시 가보니 오데뜨가 초인종이 울렸을 때 자고 있었는데 뒤늦게 나가보니 스완이 이미 가고 없었다고 들러댔다.

스완은 오데뜨가 거침없이 하는 거짓말을 자주 본다. 한번은 그녀가 스완과 함께 집에 있으면서 병을 구실로 만찬회에 나가지 않았는데, 다음 날 베르뒤랭 부인에게 변명하면서 거짓말을 한다. 스완은 이런 거짓말이 대인관계의 파탄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짐작하는데 그친다.

한번은 스완이 오데뜨와 같이 있을 때,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데도 오데뜨는 억지스럽게 계속 얘기를 하며 그를 붙잡아둔다. 그런데 밖에서 누군가가 왔다가 오데뜨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간다.

스완은 우연히 오데뜨가 포르슈빌에게 보낸 편지를 보게 된다. "제가 문을 연 것은 잘한 것이었어요. 삼촌이 오신 것이었어요." (232/143/168)[1]

그 편지에는 포르슈빌에게 실례한 것을 사과하고 그녀 집에 궐련을 두고 간 것을 알리는 내용이 있었다. 그런데 그것은 지난날 스완이 처음 그녀에게 찾아갔을 때 보낸 것과 똑같은 내용이었다. 다만 스완에게는 "왜 당신 마음도 잊어버리고 놓고 가시지 않으셨어요. 마음이라면 돌려드리지 않았을 텐데."(232/143/168)라는 구절이 덧붙여져 있었다.

이런 오데뜨의 거짓말을 배경으로 스완이 진리 찾는 일에 내몰리는 색다른 경우를 살펴보자. 한번은 스완이 11시가 넘어서 오데뜨의 집을 찾아 간 적이 있었는데 그녀는 핑계를 대면서(뇌우 때

---

[1] 이하에서 프루스트의 불어본, 김창석의 번역본, 김희영의 번역본의 쪽수를 차례대로 병기한다.

문에 마음이 편치 않고 두통이 났다고) 30분도 안되어서 그를 내보낸다.

그는 집에 돌아갔지만 그녀가 어떤 남자를 기다린다는 의심이 생겼다. 그는 (그녀 집을 나온 지 한 시간 반 밖에 지나지 않아서) 합승마차를 타고 그녀의 집 뒤쪽 거리로 간다.

그가 여러 번 그녀에게 침실의 창문을 열어달라고 창을 두드리던 곳 근처에 이르렀는데, 거리의 창문들에는 모두 불이 꺼진 상태이고 한 창에서만 불빛이 비쳐 나왔다. 그 불빛은 "기나긴 밤과 밤, 그의 눈에 띄기 훨씬 전부터 그를 기다리며, 거리에 들어선 그를 기쁘게 하며 '그녀가 저기에서 자기를 기다리네'하고 알려주던" 것이었지만, 지금은 '그녀가 저기에서 그녀가 기다리던 다른 사내와 함께 있네' 하고 알리는 기호인 까닭에 그는 괴로워하며, 그 사내가 누구일까 궁금해 한다.

"그는 황금빛 분위기 속, 창틀 뒤에 보이지 않는 미운 한 쌍이 움직이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떠난 후에 온 놈의 존재와 오데뜨의 거짓과 그녀가 그 놈과 한창 맛보고 있는 행복을 드러내는 속삭임을 듣고는 괴로워하였다."(273/130/154)

조금 전까지 의심하던 오데뜨의 다른 삶l'autre vie d'Odette이 지금 눈앞에서 환하게 드러날 것이므로 그는 "아무 것도 모르는 죄수 여인처럼 갇힌" 그들에 대해서 원할 때 들어가서 현장을 포착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그는 기습하는 대신에 덧문을 두드리기로 했다. 그래서 오데뜨에게 자신이 그녀가 한 짓을 알고, 속삭임을 들었음을 알려주고자 했다. 그래서 조금 전까지 다른 사내와 함께 자기의 착각을 비웃고 있다고 상상했지만 "이제는 거꾸로 그들이야말로 자기가 먼 곳에 있다고 여기고, 이미 덧문을 두드리려고 와 있는 자기에게 결국 속는 줄도 모르고" 있는 불리한 지위에 놓인 것이다. (273/131/154)

스완은 이상한 쾌감을 느낀다. "의혹과 고통이 진정될 때 느끼는 것과는 다른 무엇, 곧 지성적인 즐거움un plaisir de l'intelligence"(273/131/155)을 느낀다. 이런 기묘한 상황에서 인식의 즐거움이라니! 질투로 고통을 감내하면서 얻는 사랑의 진리는 기이한 즐거움과 진리 충동을 일깨운다.

스완은 근래에 사랑에 빠지고 나서 사물들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것은 것들이 오데뜨와 관련되거나 그녀의 추억을 반영하는 경우에만 그러했다. 그런데 지금의 질투가 되살린 것은 "학구적인 젊은 시절의 능력, 곧 진리에 대한 열정la passion de la vérité"(273/131/155)이었다. 그런데 이런 열정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개인적인 진리를 추구한다.

"그와 연인 사이에서, 오로지 그녀로부터만 빛을 발하는 진리, 오데뜨의 행동이나 그녀의 교류관계, 계획, 그녀의 과거를 유일한 대상으로 삼아서 거의 무한한 가치prix infini를 지니고 이해관계를 벗어난 아름다움une beauté désintéressée을 갖는, 전적으로 개인적인 진리vérité tout individuelle였다."(273-4/131/155) 스완에게 일상적인 사소함은 무가치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그

런데 사랑하고 나서 개인이 아주 심오한si profond 어떤 것이 되어서, "한 여인의 일상의 사소한 것"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다. 그것은 지난 날 "역사에 대해서 품었던 호기심"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까지 부끄러워했던 기이한 짓들, "창 앞에서 동정을 살피는 것, 필요하다면 내일 제 3자를 능숙하게 꾀어서 말하게 하거나, 하인을 매수하거나 문에서 엿 듣거나 하는 것"이 진리를 탐구하는 적절한 방법으로 바뀐다. 그러한 시도가 "고문서textes 해독, 증언들의 비교, 기념비에 대한 해석과 마찬가지로 진리 탐구la recherche de la vérité에 적절한 참되고 지성적으로 가치 있는 véritable valeur intellectuelle 과학적 조사방법"으로 여겨졌다. (274/131-2/156)

그런데 스완은 덧문을 두드리려고 하다가 자기가 의심을 품는 것을 오데뜨가 알게 될까봐 부끄러워하며 갈등한다. 졸렬한 짓 때문에 그녀가 자기를 싫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덧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그녀가 자기를 속이면서도 그대로 자기를 사랑해주는 것"을 용인하게 된다. 눈앞의 욕망을 따를 것인가, 그래서 장래의 행복을 희생시킬 것인가? 아니면 진리 같은 것을 내팽개치고 물러설 것인가?

그러나 그 순간 진리를 알려는 욕망le désire de connaître la vérité이 더 강하고, 더 고귀하게 여겨졌다. 그래서 진리 없는 행복 대신에 진리가 드러내는 불행을 직면할 각오를 할 수밖에 없었다. 철학적 진리가 도덕적 선과 인식의 쾌감을 준다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사랑하는 자의 진리는 불행의 지옥에 뛰어들 용기를 요구한다. 진리 아니면 행복, 가운데 어느 것을 택할 것인가?

"스완은 목숨을 내 던지더라도 정확하게 재구성하고 싶었던 상황의 현실을, 마치 열독하는 학자가 감동하지 않을 수 없는 풍부한 예술미가 그 귀중한 고서본의 금박 겉장에 있는 것처럼 빛의 줄무늬가 난 창 뒤에서 읽을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그는 이처럼 황황히, 이처럼 아름답게 빛을 통과시키는 반투명 재질의 종이로 된 유일한, 하루살이의, 소중한 진서에서, 자기를 뜨겁게 흥분시키는 진리를 알게 되는 것에 쾌감을 느꼈다."(275/132/156)

또한 스완은 아는 자와 모르는 자의 대립항에서 아는 자의 우월함을 택한다. 그는 안에 있는 그들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는 자리에 있다. 그것은 "안다는 사실 자체보다는 자기가 알고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우월감이다. 그는 결심하고 나서 덧문을 두드린다. 소리가 나지 않아서 더 세게 두드리자 알지 못하는 사내의 목소리가 들린다. ("거기 누구요?") 한 번 더 두드리자 창과 덧문이 열린다. (그는 이제 물러설 수 없어서 시기심 많은 꼴로 보이지 않으려고 쾌활하게 소리친다. "그대로 자구려. 이 앞을 지나다가 불이 보여서 이제 몸이 편해졌는지 알려고 들렀어

요.") 그런데 눈앞에 늙은 신사 두 사람이 창가에 서있는 것이 아닌가?

그는 모양이 같은 창문들 가운데 불이 켜진 창문을 오데뜨 방의 것으로 잘못 알고 이웃집 창문을 두드린 것이었다.

그는 그곳을 떠나면서 자기가 오데뜨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를 안고 돌아온다. 물론

그는 이 실패를 오데뜨에게 말하지 않는다.

이런 에피소드는 스완의 실수를 빌어서 그와 오데뜨가 맺는 관계의 이면(裏面), 사실은 (그날 밤의 예외를 제외하고) 일상적으로 그녀가 다른 누군가(동성애적 대상도 포함해서)와 사랑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스완은 이 뜻하지 않은 기억과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심한 고통을 느낀다. 그는 고통을 초래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쓰지만 다시 그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 때문에 다시 괴로워하곤 하였다.

그의 질투는 "마치 그의 사랑의 그림자인 것처럼" 애정 표현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그녀가 "스완을 비웃고 다른 남자에 대한 사랑스러운 미소와 기울어진 머리, 하지만 지금은 다른 입술 쪽으로 기울어진 머리와, 전에 그에게 보여주었던 애정 표현, 그렇지만 이제는 다른 사내에게 주는 온갖 애정표현들과 뒤 섞인다"(276/134/158-9) 그가 그녀의 집에서 가져온 관능적인 추억은 (스케치, 설계도 같은 것이어서) "그녀가 다른 녀석들과 어울려 가질 수 있는 타오르는 듯하거나 정신을 잃을 듯한 자세를" 상상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녀 곁에서 맛보는 쾌락 하나하나를, 자기가 고안했으나 경솔하게도 그 달콤함을 그녀에게 알리고 만 애무 하나하나를, 그녀에게서 찾아낸 매력 하나하나를 알려준 것을 후회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조금 후에는 그런 것들이 새로운 고문 도구가 되어서 그의 고통을 더할 것이기 때문이다."(276/134-5/159)

***사랑의 시작, 사랑의 조건**

가) 오데뜨를 찾아서

스완은 오데뜨를 만나기 위해서 베르뒤랭 부부가 조직한 사교 모임에 참여 한다—그 모임은 수많은 여성 편력을 지니고 고급 사교계의 총아인 스완이 갈만한 곳이 아니었지만. 베르뒤랭 네 모임은 명성 있는 사교계에 발을 들여놓기 어려운 이들만 모이는, 고상하지도 심미적이지 않은 취미와 기호에 따라서 스스로 특별한 존재들이라고 자부하는 속물들의 폐쇄적인 사교 모임이다. 스완은 자기에게 어울리지도 않는 모임에 부자연스럽게 참여하면서 그들의 기묘한 압력을 받는다. 그가 오데뜨에게 관심을 쏟는 정도에 비례해서 그런 배척과 견제가 더 심해진다. 그에게 오데뜨는 친밀하고 관심을 끌만하지만 그렇다고 배타적인 사랑 대상이라고 할 존재는 아니었다. 그런데 언제 그녀에 대한 사랑이 시작되고 그녀만이 스완의 유일한 사랑 대상이 되었을까? 그것은 오데뜨가 지닌 객관적 특성 때문이 아니라 우연한 사건 때문이었다.

한번은 스완이 오데뜨를 만나러 베르뒤랭 네 모임에 갔는데, 급사가 그녀의 전갈, 한 시간 전에

그녀가 떠나면서 집에 가기 전에 프레보 카페에 초콜릿을 먹으려고 들를지 모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스완은 프레보 가게로 조급하게 달려간다.

그는 베르뒤랭 네 모임에서 오데뜨가 이미 떠났다는 말을 들었을 때 기묘한 생각들이 떠올랐다. "그는 갑자기 마음에 생긴 고통의 새로움을 깨달았다.(...) 그런데 뭐란 말인가 Quoi? 내일이 아니고는 오데뜨를 만나지 못할 거라는 사실 때문에 생긴 마음의 동요는, 한 시간 전, 베르뒤랭 네 모임에 가면서 그 스스로 바랐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는 지금 프레보 카페로 가는 자신이 다른 자기라고 느낀다. 그는 이미 예전의 스완이 아니다.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다. 새로운 인간une nouvelle personne이 그에게 덧붙여지고 뒤섞여서 그와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아마 그는 새로운 인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마치 스승이나 질병에 대해서 그러하듯이 이 존재는 조심스럽게 대해야 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지만 그 새로운 인간이 자기에게 덧붙여졌다고 느낀 순간부터, 그에게 삶은 더욱 흥미로워 보였다." (228/65-6/78)

"프레보 카페에서 만날지도 모르지만 (이 기대 때문에 그 만남을 앞선 수많은 순간들이 모조리 뒤죽박죽이 되고 벌거벗겨져서, 정신을 안정시킬만한 단 하나의 공상이나 추억도 찾지 못했다), 실제로 만난다면, 아마 다른 만남처럼 하찮은 것이 되고 말 것이다."(229/66/78)

오데뜨는 프레보 카페에 없었다. 그래서 모든 레스토랑을 찾기로 하고, 자신은 한쪽 방향의 레스토랑을 찾고, 마차몰이꾼에게 다른 방향의 레스또랑을 찾도록 하였다. 등불이 꺼지기 시작하는 카페들 주변을 배회하는 스완은 "마치 어둠의 왕국, 죽은 이들의 망령들 사이에서 에우리디케를 찾는 것처럼" 보인다.

나) 사랑의 조건

그러면 사랑이 어떤 조건에서 이루어지는가? 방금 본 오데뜨 찾기처럼 스완이 오데뜨를 사랑할 만한 존재로 여기는 까닭은 그녀의 객관적인 속성에 매력을 느끼기 때문이거나

사랑의 내적 전개과정에 따른 결과가 아니다. 그러면 사랑의 결핍을 불러일으키는 조건은 무엇인가?

"사랑이 산출되는 온갖 양태들이나 성스러운 병을 퍼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것은 이따금 우리를 스쳐 지나가는 커다란 동요의 숨결이다. 운명의 주사위가 던져진 그런 순간에 우리가 기쁨을 함께 나누는 존재야말로 우리가 사랑하게 될 자이다. 그 존재가 과연, 그때까지의 다른 존재 이상으로, 또는 다른 존재와 같은 정도로 우리 마음에 들거나 그렇지 않은 것은 그리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필요한 것은 그 존재에 대한 우리의 취향이 배타적이 되는 점이다. 그래서 이 존재가 우리 곁에 없을 때 그 사람의 동의로 우리가 누리던 쾌락이 갑작스럽게 그 사람을 대상으로 삼는 불안한

욕구로, 이 세계의 법칙으로는 결코 채워질 수도, 치유될 수도 없는 부조리한 욕구, 그 사람을 소유하려는 미친 듯한insensé 고통스러운 욕구로 대체될 때, 이러한 사랑의 조건은 실현된다."(230/68-9/81-2)

스완은 그때까지 문을 닫지 않은 레스토랑을 찾아다닌다. 그러면서 "행복의 유일한 가설"을 놓지 않는다. "그는 이제 자기의 동요, 이 만남에 우연한 가치를 숨기지 않고, 만남이 성공할 경우에 마차몰이꾼에게 보수를 주겠다는 약속까지 했으니, 마치 성공하고자 하는 소망을 이 마차몰이꾼에게 불어넣음으로써 자기 소망을 더 강화해서, 설령 오데뜨가 이미 집에 돌아가서 자고 있을 경우에도, 자기를 위해서만은 그녀가 큰 거리의 어느 레스토랑에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이곳 저곳 찾아다니던 그는 우연히 오데뜨와 마주친다. "나중에 오데뜨는 그에게 설명했다. 프레보에는 마침 자리가 없어서 메종 도레에 가서 구석진 곳에서 밤참을 먹었기 때문에 그의 눈에 띄지 않았을 것이고, 자기는 마차 쪽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고." (231/69/82-3)

"그녀는 그를 만나리라고 그다지 기대하지 않았기에 깜짝 놀랐다. 스완이 파리를 분주하게 돌아다닌 것은 그녀를 만말 수 있으라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만남을 단념하기가 너무 잔혹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 기쁨, 그의 이성이 오늘 밤에는 실현되지 않을 것이라고 쉴 새 없이 평가하던 기쁨이, 이제는 오히려 그 덕분에 보다 현실적인 것으로 보였다. 기쁨이 있으리라고 예측하면서 기쁨에 협력한 것이 아니었으므로 기쁨은 그의 바깥에 머물러 있었다. 그 기쁨을 자신에게 주기 위해서 정신에서 끌어낼 필요도 없었다. 기쁨은 스스로 발산되었고, 기쁨 자체가 그가 두려워하던 고립을 꿈처럼 사라지게 하는 찬란하게 빛나는 진리vérité를 투사했다. 그래서 그는 아무 생각 없이 그 진리에 자기의 행복한 몽상을 기대어 쉬게 할 수 있었다. 마치 어느 화창한 날 지중해의 해변에 도착한 나그네가, 떠나온 고장들의 존재마저 의심할 정도로 빛나고도 끈질긴 푸르름에 도취되어서 바다 쪽에 눈길을 던지기 보다는 찬란하게 내쏘는 광채에 눈부신 것과 비슷했다."(231-2/69-70/83)

다) "카틀레야를 하다"

그때 오데뜨는 카틀레야 꽃다발을 손에 들고 있었다. 그리고 같은 꽃을 백조의 깃털 장식에 달아 레이스 머리쓰개 아래 꽂고 있었다. 그런데 마차의 말이 장애물 때문에 껑충뛰는 바람에 그들은 엉덩방아를 찧고 그녀는 소리를 지른다. 그는 그녀의 어깨에 팔을 둘러 자기 쪽으로 기대도록 안으면서 말한다. "(...) 조금 전 충격으로 삐져나온 당신의 코르사주의 꽃을 바로 잡아드려도 괜찮을까요? 잃어버릴지도 모르니 좀 더 깊이 꽂으면 어떨까요"(232/71/84) 남자에서 이런 정중한 대접을 받아 본 적이 없던 오데뜨는 무척 기뻐한다.

"아무렴요. 전혀 거북하지 않아요."

"(...) 정말 괜찮으신가요? 자, 뭔가 조금...그렇군요... 꽃가루가 당신 몸에 묻었군요. 손으로 꽃가루를 닦아 드려도 될까요? 너무 세게 하지 않았습니까? 너무 거칠지는 않았나요? 조금 간지럽겠지요? 하지만 구겨지지 않도록 우단 옷에 손대지 않으려고 조심하니까, 자연히, 이것 봐요, 정말 꼭 매어두어야 했어요. 떨어질 뻔했어요. 이렇게 내가 좀 더 깊이 꽂아 놓으면.....정말 불쾌하지 않으신가요? 향기가 있는지 없는지 알기 위해서 좀 맡아봐도 될까요? 이 내음을 한 번도 맡아본 적이 없어서요. 맡아도 괜찮겠습니까! 진실vérité을 말씀해 주세요." (232-3/71/85)

그는 오데뜨가 피렌체 파의 거장이 그린 여인처럼 우수를 띤 엄숙한 얼굴과 닮았다고 여긴다.

"그리고 그런 얼굴을 그녀가 마지못해 그의 입술 위에 떨어뜨리려는 순간에 약간의 사이를 두고 잠시 동안 그 얼굴을 두 손 사이에 붙잡은 것은 바로 스완이었다. 마치 무척 사랑하는 아들의 시상식에 함께 하기 위해서 초대받은 모친을 대하듯이, 그의 상념이 서둘러 달려와 그토록 오랫동안 품어 온 꿈을 알아보고, 그 꿈의 실현에 참여하도록 시간을 주고 싶었다. 어쩌면 스완은 아직 소유되지 못한, 아직 껴안아 보지도 않은 이 오데뜨의 얼굴에, 영원히 떠날 풍경을 눈 속에 간직하려는 이의 눈길을 던졌는지도 모른다."(233/72/86)

그러나 그는 그녀에 대해서 소심해서 카틀레야를 고치는 것으로 시작하여 드디어 그날 밤 그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고 나서, 혹은 그녀의 마음을 언짢게 할까 봐서, 혹은 나중에 생각하게 속인 것으로 보일까 봐서, 혹은 그날 밤의 요구보다 더 큰 요구를 표명할 만한 대담성이 없어서, 며칠 동안 이 구실을 사용했다. 그녀가 가슴에 카틀레야를 꽂고 있으면,

그는 말했다. "유감천만인데요. 오늘 저녁, 카틀레야를 고칠 필요가 없다니, 저번 밤처럼 금세 떨어질 지경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요것은 좀 똑바르지 않은 것 같군요. 요전처럼 향기를 풍기는지 맡아 보아도 좋습을까요?" 또는 그녀가 꽃을 꽂고 있지 않으면 아쉬운 듯이 얘기한다. "오, 오늘 저녁은 카틀레야가 없군요. 고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얼마 동안은 첫날의 순서대로 손가락이나 입술로 오데뜨의 가슴을 어루만지는 것으로 시작하여 매번 애무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아주 한참 후에 카틀레야 꽃을 고쳐주기(고치는 흉내)가 사라지고 나서도, '카틀레야를 하다faire catleya'라는 은유가 육체적인

점유 행위possession physique를 뜻하려고 무심하게 사용하는 단순한 용어가 되어서, 이 은유는 그 잊어버린 용법을 기념하면서, 두 사람의 용어 가운데 그 용법보다 오래 남았다."(234/73/87)

"그날 밤, 그가 몸을 떨면서 바란 것은 "카틀레야의 커다란 연보랏빛 꽃잎 사이에서 나오려 하는 이 여인의 점유"였다. 그리고 그가 이미 맛보고 있는 쾌락, 오데뜨가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도 참고 있기 때문에, 쾌락은 그에게--마치 지상 낙원의 꽃들 사이에서 그 쾌락을 맛본 첫 인간에게 그러했듯이--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던 쾌락, 그래서 지금 그가 창조하려고 하는 쾌락--그것에 그가 붙인 특별한 이름('카틀레야를 한다')이 남긴 흔적만큼이나 아주 엄하고 특별하고 새로

운 기쁨처럼 생각되었다."(234/74/87-8)

***사랑의 기만**

스완은 2년 전에 오데뜨가 했던 말을 상기했다. "아이, 우스워! 베르뒤랭 부인이 요즘 나밖에 없다고 하지 뭐예요. 나를 연인이라고 하고je suis un amour, 날 껴안고 입 맞추지 뭐예요. 그리고 함께 쇼핑 다니고 싶대요. 말도 놓으라고 하지 뭐예요."(361/256/296)

그때 스완은 이 말을 (오데뜨가 기이한 짓을 감추려는 속셈에서 말한 것 속에 숨겨진 것을 알아보기는커녕) "뜨거운 우정의 표시"로 받아들였다. 뒤늦게 베르뒤랭 부인의 애정에 대한 회상이 그녀의 나쁜 취향에 대한 대화의 추억과 연결되었다. "이제는 이 두 가지를 머리에서 떼어놓을 수 없고 현실에서도 베르뒤랭 부인의 애정이 뭔가 진지하고 중요한 뜻을 그 농담에 부여하고, 농담은 대신 애정의 순진성을 빼앗고 서로 뒤얽히는 것을 보았다."(361/256/297)

그는 오데뜨의 집에 가서 일부러 그녀 곁에서 멀리 떨어져 앉았고, 입 맞추려고도 하지않았다. "그 입맞춤이 오데뜨의 마음이나 자기 마음에, 입맞춤이 애정을 일깨울지, 노여움을 일깨울지 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침묵을 지키면서 그들의 사랑이 죽어가는 것을 바라보았다."(361-2/256/297)

그는 결심하고서 몇 가지를 물어본다. "당신과 베르뒤랭 부인에 관해서 전에 내가 어떻게 생각했는지 기억나오? 말해 봐요, 그게 진실vrai이었는지, 그 부인하고요, 아니면 다른 여인하고요?" 그녀는 머리를 내젓는다. "그러나 앞으로 올 사물을 부인하는데 쓰이는 이런 도리머리는 과거 일을 부인하는데 쓰이면, 그 속에 어떤 불확실성이 뒤섞인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강한 부정이나 도덕적 불가능성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편의상의 이유를 나타낼 뿐이다. 오데뜨가 그런 표시를 해서 거짓faux이라는 뜻을 표시한 것을 보고 스완은 그것이 분명 참vrai이라고 파악했다."(362/257/297)

그는 "나는 어떤 여자하고도 그런 짓을 결코 하지 않았어요"라고 말해보라고 재촉한다.

그녀가 그 말을 받아서 되풀이하고 맹세하자 그는 계속 추궁한다.

"난 말이오, 내가 알고 있는 것 밖에는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늘 내가 말하는 것 이상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남들이 일러바쳐서 당신을 미워하게 하더라도, 당신이 고백한다면 내 괴로움이 가벼워질 거요. 이건 당신만이 할 수 있는 것이오. 당신 행동에 화를 내는 게 아니오. 난 모든 것을 용서하오. 당신을 사랑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내가 아는 바를 끝까지 부정하려고 하는 당신의 거짓, 당신의 터무니없는 허위faussetéabsurde 때문이오. 그런데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당

신이 잡아떼며 맹세하는 걸 보면서, 어떻게 당신을 계속 사랑할 수 있겠소? (.....) 자, 어서, 당신의 성스러운 메달을 걸고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말해 봐요." (363/258/298-9)

"하지만 난 그런 건 하나도 몰라요, 나는." 그녀는 화가 나서 소리 지른다. "아마 오래 전에, 제가 하는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아마 두세 번peut être deux ou trois fois."(363/258/299)

그런데 이 "두세 번"이라는 말은 십자가 같은 생생한 흔적을 남기고 "심장에 닿기라도 한 것처럼 가슴을 찢고, 독약을 삼킨 것처럼 그를 아프게 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런 불행을 치르게 한 오데뜨가 덜 소중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고뇌가 커지면 커질수록, 동시에 이 여인만이 지닌 진통제적, 해독제적인 가치가 커지는 것처럼 더욱 소중해졌다. 그는 갑자기 악화된 환자를 돌보듯이, 그녀를 보살펴주고 싶었다. 그녀가 '두세 번했다고 말한 무서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고 싶었다. 그러려면 오데뜨를 감시해야 했다." (363/259/300) 하지만 그녀를 한 여인으로부터 가로막을 수는 있더라도 여인들은 수없이 많지 않은가?

그는 그녀의 또 다른 존재를 알아야 하겠다는 불가능한 욕망에 사로잡힌다.

"벌써 그는 질문을 다시 시작하려고 하였다. 왜냐하면 그의 질투가 어떠한 적이라도 뒤로 물러갈 만큼 수고해서 그처럼 심한 타격을 가하고, 그가 아는 한 가장 잔혹한 고통을 지각하게 한 그 자신의 질투는 그에게 더욱 깊은 상처를 입히려고 하였기 때문이다. 마치 사악한 신처럼, 질투는 스완을 부추겨서 파멸에 이르기까지 밀고 나갔다. ...마지막으로 묻겠는데, 내가 아는 여인하고였소?"(364-5/260/302)

"..이걸로 끝이오. 딱 한마디만. 얼마 전의 일이었소, 그것은?"(365/261/302)

"...여기 이 방에서 일어난 일이었소? 어느 저녁이라고 하지 말고, 그날 저녁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생각나게 해 달라는 거요. 이봐요. 누구하고 함께 그랬는지 당신에게 생각나지 않을 리가 없잖소. 오데뜨, 내 사랑!"(365/261/302-3)

오데뜨는 모른다고 완강하게 버티다가 예상치 않은 다른 사건을 노출시킨다. 해명은 또 다른 의혹을 부르는데, 이 의혹을 감당하기 어려운 더 큰 거짓을 새로운 추론의 항목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그래도 모르는 걸 어떡해요. 나, 부아였나 봐요. 당신이 부아의 섬으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던 저녁이었나 봐요....." 그녀는 자신의 진실성véracité을 증명하는 세부 사항을 제시하게 되어서 꽤 기쁜 듯이 말했다. "옆 테이블에 오랜만에 보는 한 여자가 있었어요. 그 분이 저보고 말하지 뭐예요. '잠깐 작은 바위 뒤로 가서, 달빛이 물에 맑게 비치는 걸 봅시다.' 저는 우선 하품부터 하고 대답했어요. '전 싫어요. 피곤하니까. 여기가 더 좋아요.' 그 분은 이렇게 아름다운 달빛을 본적이 없었다고 확언했어요. 제가 그분에게 말했지요. '웬 허풍이세요Cette blague!' 라고요. 그 여자가 뭘 하

려는지 난 잘 알고 있었거든요."(365-6/261-2/303)

오데뜨는 웃으면서 이 이야기를 한다. 그리고 덧붙이기를, "가엾기도 하셔라, 저를 괴롭히고, 저에게 거짓말을 하게 시키고선 기뻐하시다니, 전 당신이 절 편하게 내버려두라고 거짓말 하는 거예요." (366/262/303)

스완에게는 이 두 번째 타격이 더 강렬했다. "그 일이 자기가 모르는 과거가 아니라, 그처럼 뚜렷하게 생각나는 밤마다--오데뜨와 함께 보내고,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줄 믿는데, 이제 와서 과거를 돌아다보아 간교하고 무서운 무엇인가를 당한 느낌이 드는 그 밤마다--그의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져서 최근에 일어난 일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다. 수많은 밤의 한 가운데, 갑자기 커다란 구멍, 부아 섬에서의 그 순간이 뻥 뚫린 것이었다. 오데뜨는 지성적이진 않았지만 자연스러운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녀가 그때의 광경을 꾸밈없이 흉내 내며 이야기하여서, 스완은 헐떡거리며 모든 것을 눈앞에 보았다. 오데뜨의 하품을, 작은 바위를."(363/262/304)

이처럼 스완이 그녀를 심문하자 "그녀의 약간의 고백"이, 그가 "의심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 까닭에 "그녀가 이제까지 그런 짓을 자주 한" 것이고, "그런 짓을 앞으로도 되풀이할 것"이라는 단정을 내려야 할 지를 평가하고자 했다. "그 분이 뭘 하려는지 난 잘 알고 있었거든요", "두세 번", "웬 허풍이세요"라고 한 말들을 되새겼다. 그는 이런 말의 칼이 그에게 일격을 가한다고 느낀다. (367/263-4/304) 그는 격심한 고통에 사로잡힌다.[2] "그는 기억의 재창조하는 무서운 능력에 감탄했다. 고통이 진정되려면, 나이와 더불어 모태의 힘이 약화되어서 번식력이 감퇴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런데 오데뜨가 입밖에 낸 말 가운데 어느 하나가 그를 괴롭히는 힘이 소진되는 것처럼 보였을 때, 지금까지 스완이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지 않던 다른 거의 새로운 것이나 다름없는 말이 앞선 말을 대체하면서 이전 그대로의 힘으로 그를 갈겨댔다."(368/265/307)

"롬 대공부인 댁에서 저녁 식사를 한 날 밤의 기억이 고통스러운 것이었으나, 그것은 그의 아픔의 중심에 지나지 않았다. 이 아픔은 그것을 둘러싸는 앞뒤의 나날에 고통의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

---

[2] "어떤 덫에 걸렸기에 그 문이 닫히자마자 이런 새로운 지옥에 굴러 떨어지고 말았는가, 한번 떨어지면 영영 빠져나올 수 없는 이 새 지옥에, 가엾은 오데뜨! 그는 그녀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녀에게는 죄가 반 밖에 없었다. (...) 하지만 전에 무관심하게 읽었던 알프레드 비니의『어느 시인의 일기』의 그 문장, '한 여인을 사랑한다고 느꼈을 때, 그 여인의 주변은 어떠한가? 그 여인의 생활은 어떠했는가? 하고 물어보아야 하는데, 우리 삶의 온갖 행복이 거기에 달려있기 때문이다'라는 구절이 얼마나 뼈아픈 진리가 되었는지. 스완은 '웬 허풍이세요!' '그 여자가 뭘 하려는지 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는 단순한 문장을 한자 한자를 생각하면서 음미하는 것에 그토록 고통스럽게 하는faire le mal 힘이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하지만 그가 단순한 것으로 여기는 것은 골조의 조각에 지나지 않고 오데뜨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겪었던 고통이 그것 사이에 붙어 있다가 언제라도 그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이는 이제 다시 느낀 것이 그것과 똑같은 고통이었기 때문이다." (367-8/264-5/306-7)

리고 그가 이 기억의 어떤 지점인지를 찾아내려고 해도 베르뒤랭네 패거리가 자주 부아 섬에서 저녁식사를 하던 계절 전체가 그를 아프게 하였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질투가 불러일으킨 호기심도, 그 호기심을 채우려면 새로운 고통을 주지않을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서서히 약화되어 갔다."(368/265/308)

"아직 그와 만나기 전에 오데뜨가 지낸 모든 삶의 시기, 한 번도 상상해보려고 한 일이 없던 시기는, 그가 막연히 생각하고 있듯이 추상적인 연장이 아니라, 역시 특정한 해들로 이루어지고, 구체적인 사건들로 채워졌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이상을 알게 되면, 빛깔없이 흐르는 물 모양이자 참을만하던 과거가 당장 만질 수 있고 더러운 신체로 변하고, 개별적이고 악마적인 얼굴을 하지 않을까 해서 겁이 났다. 그래서 그는 과거를 생각하려고 애쓰지/탐구하려 하지chercher 않았는데, 이는 과거를 생각하는 것이 귀찮아서가 아니라 고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 그는 부아 섬이라든가 롬 대공 부인이라는 이름을

예전처럼 가슴 찢기는 고통 없이 듣는 날이 다시 오기를 기대했다."(368-9/266/308)

스완의 이런 자기 방어에도 불구하고 진리는 바깥에서 침입한다. 바로 오데뜨 자신이 깨닫지 못한 채, 스완이 모르고 있는 것, 알기를 꺼려하는 것을 자주 스스로 누설한다 révélait spontanément. "오데뜨의 실제 생활과 스완이 믿었고 아직도 믿는 오데뜨의 비교적 순진한 생활 사이에 놓인 커다란 차이, 그 차이의 넓이를 오데뜨 자신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369/266/308-9) 타락한 이가 남들 앞에서는 정숙한 체하면서 악습을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 악습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커져서 통제할 수 없게 되고 만다. 오데뜨는 자기를 모르거나 자기를 가장하는 인간처럼 행위 한다.

"이런 악덕이 오데뜨의 정신에서 그녀가 스완에게 숨겼던 행동들의 기억과 동거하는 동안 그런 악습이 오데뜨의 정신에서 오데뜨의 다른 순진한 행동도 점점 그 숨기는 행동에 반영되어 그 악습에 물들어갔는데, 그녀는 그런 것에서 조금도 이상한 점을 알지 못했고, 그 행동도 그녀의 독특한 환경 가운데 활동하면서 전혀 폭발하지détonnassent 않았다. 하지만 그녀가 감추고 있는 행동을 스완에게 얘기할 때, 그는 그것이 계시révélation하는 환경에서 생기는 격렬한 공포에 내몰렸다."(368/266-7/309)

어느 날 스완은 그녀가 뚜쟁이 여인의 신세를 진 일이 있는지 물어보려고 애썼다. 그는 (그럴 리 없다고 확신하면서) 익명의 고발 편지가 주는 의혹을 없애기 위해서 오데뜨에게 해명할 기회를 주고 싶었다. "어머! 천만에요! 하긴 그것 때문에 시달리지 않은 것도 아니지만요." 그러면서 건방진 미소를 지으면서 덧붙인다. "어제도 나를 두 시간이상이나 기다린 여자가 있었는데, 얼마라도 상관없다고 하지 뭐예요. 어느 대사가 그 여인에게 '당신이 그녀를 데리고 오지 않으면 자살하겠

다'라고 부탁했나 봐요.... 마침내 제가 나가서 그 여자를 어떻게 대했는지 당신이 보셨더라면 좋았을 텐데. 옆방에서 듣고 있던 하녀 말로는 제가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다는 거예요. "싫다고 하는데도 왜 이러세요. 그런 생각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어쨌든 저도 하고 싶은 대로 할 자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돈이라도 필요하면 또 모를까....." (...) 아! 당신이 어딘가에 숨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까요. 내 사랑! 당신은 만족했을 거예요. 당신의 귀여운 오데뜨에게 그래도 좋은 점이 있기는 하지요. 비록 누군가는 가증스럽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지만." (369-370/267/309-310)

게다가 스완에게 탄로 난 게 아닌가 하는 추측으로 오데뜨가 잘못을 고백하는 경우에, 그 고백은 오랜 의심을 종결짓기는커녕 도리어 새로운 의혹의 출발점이 되곤 했다. 그 고백이 결코 그의 의심과 추론에 들어맞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데뜨가 그 고백에서 중요한 점을 생략하려고 한 것은 허사였고, 게다가 그 부수적인 곳에, 스완이 미처 상상하지 못했던 그 무엇인가가 남아 있어서. "그 새로움이 스완을 억누르며 그의 질투에 문제가 되는 항termes을 바꿔놓곤 했다."(370/268/310)

***메종 도레의 숨겨진 이야기**

이런 사례 가운데 스완을 경악케 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그의 사랑의 출발점이 되었던 사건의 진리가 드러나고 만 것이다.

한번은 오데뜨가 스완에게, (파리 뮈르시아의) 무도회 날에 포르슈빌이 그녀를 방문한 것을 해명했다. 스완은 "그렇게 오래 전부터 그 사람과 아는 사이였나? 아아, 그렇지, 그랬지."하고 몰랐던 표시를 내지 않았지만 그는 떨고 있었다. 그처럼 소중하게 간직해 온 그녀의 편지, 그것을 받았던 그 무도회 날에 "그녀가 메종 도르[:메종 도레]에서 포르슈빌과 함께 점심을 들었나 보다 하는 생각에."(370/268/311)

그런데 '메종 도르' 때문에 다른 의혹이 드러난다. "응, 그건 말이예요. 당신이 프레보 카페로 절 찾으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하고 만났을 때, 제가 메종 도르에서 막 나오는 길이라고 말한 밤이 있지 않나요. 그날 밤 나는 그곳에 가지 않았거든요." 그녀는 그가 그것을 알고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얘길 하면서 (스완의 고통은 짐작도 못하고) 까르르 웃는다.

"사실은 그 때 메종 도르에 가지 않았어요. 포르슈빌 집에서 나오는 길이었어요. 물론 그 전에 프레보에 가 있었던 것은 정말이고요. 그분과 거기서 만났는데, 자기 집에 가서 판화를 구경하지 않겠냐고 했어요. 그러나 그 댁에는 누군가가 이미 그분을 만나려고 온 분이 있었어요. 당신에게 메종 도르에서 막 오는 길이라고 한 것은 당신의 마음을 언짢게 할까봐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히려 제가 더 친절한 게 아닌가요. 틀린 말을 한 것은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이제 그

사실을 당신에게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372/269/312)

그는 이 말에 압도되고 만다. "너무나 행복해서 감히 다시 생각해 보려고도 한 적이 없던 그 (소중한) 몇 달 동안, 그녀가 그를 그토록 사랑해 주었던 그 몇 달 동안에도, 그녀는 이미 그를 속였던 것이 아닌가! 메종 도레에서 오는 길이라고 말했던 그때(그들이 처음으로 '카틀레야를 하던' 그 밤)가 이미 그러했으니. 하물며 그 몇 달 동안에, 얼마나 많은 순간들에 스완이 꿈에도 의심하지 않았던 거짓말들이 감춰져 있을 것인가?" (371/269-270/312)

스완은 그녀의 손쉬운 거짓말들의 효용도 이해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 그녀가 "저, 베르뒤랭 부인에게, 드레스가 미처 준비되지 않았다든가, 이륜마차가 늦게 왔다든가 말하면 그만이죠. 언제든지 적당히 꾸며대는 수가 있는 법이예요"라고 둘러댄 얘기를 상기한다.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늦는 것을 변명하거나 밀회의 시간을 변경하는 것을 변명할 때 '베르뒤랭 부인'을 얼마든지 '스완'으로 대체할 수 있지 않은가? "저, 스완에게 드레스가 미처 준비되지 않았다든가, 이륜마차가 늦게 왔다든가 말하면 그만이죠. 언제든지 적당히 꾸며대는 수가 있는 법이예요"라고. (371/270/312-3)

스완의 가장 그리운 온갖 추억 아래, "지난날 오데뜨가 말하고 그것을 복음서의 말처럼 그가 믿어마지 않았던" 가장 단순한 말 아래에sous les paroles les plus simples, 그녀가 그에게 얘기한 그 나날의 행동 아래에서, 그리고 자주 드는 장소(예를 들어서 재봉 여공의 집, 부아의 큰 길, 경마장) 아래에 "표면에 나타나지 않은 여러 거짓말이 존재함을 느꼈다. 게다가 그런 거짓말은 가장 그리운 것으로 기억에 남아있던 것들을 모조리 비열한ignoble 것으로 만들고 말았다.

"그녀의 메종 도레에 관한 고백을 들었을 때, 마치 『니네베Nineveh의 패망』에 나오는 추악한 짐승들처럼, 그가 느꼈던 암흑 같은 공포를 도처에 떠돌게 하면서 그의 심중에 아름답게 쌓아올린 그녀의 과거의 온 건물의 돌들이 하나하나 흔들리고 말았다." (371/270-1/313-4)

그가 메종 도레에 관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그 이름을 회피한 것은 그 이름이 "이미 오래 전에 잃어버린 행복이 아니라 이제 막 알게 된 불행을 상기시키기 때문이다." "우리의 사랑, 우리의 질투라고 믿는 것은 연속적이고 분할되지 않는, 동일한 열정이 아니기 때문이다. 사랑이나 질투는 무한하게 연속적인 사랑, 무한하게 다른 질투들로 구성되어 덧없지만, 그 끊임없는 다양성 때문에 연속적이라는 인상l'impression de la continuité, 단일성l'unité을 지닌다는 착각을 일으킨다. 스완의 사랑의 생명, 질투의 충실성fidélité은 수많은 욕망과 의혹들의 죽음과 배신infidélité으로 이루어진 것들인데, 그 모든 것이 오데뜨를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만일 스완이 오랫동안 그녀를 만나지 못했더라도, 그 동안에 죽었을 욕망과 의혹을 다른 것이 차지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데 만나기 때문에, 오데뜨의 존재는 스완의 가슴에 다정함과 의혹의 씨앗을 번갈아 계속 뿌려댔다."(372/271/314)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기차에서 자다가 깨어난 스완은 꿈속에서 본 오데뜨의 파리한 안색, 야윈 두 볼, 피곤한 눈을 기억하면서 그들이 알게 된 이후에 주의해서 보지 않던 것을 포함해서 모든 것을 상기한다. "필경 잠자는 동안, 그의 기억이 처음으로 그들이 관계를 맺을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가 그런 온갖 것의 정확한 감각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다.

그래서 그 자신이 더 이상 불행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도덕적 수준도 낮아지면서 다시금 그에게 나타나는 비열함으로 외쳤다. 내 마음에 들지도 않고 내 부류mon genre도 아닌 한 여인 때문에 내 삶의 여러 해를 망치고, 죽고 싶어 하기까지 하고, 내 가장 큰 사랑mon plus grand amour을 바치다니!" (382/286/330)

스완의 역설적인 사랑에서 애정과 의심, 고통과 진리 찾기의 꽃을 번갈아 피게 한 오데뜨, 사랑하면서 수많은 시간을 허비하고 질투를 불러일으켜서 사랑의 진리를 찾아 나서게 하면서 기만이 사랑에 불가피한 것임을 철저하게 깨닫도록 한 그 여인! (그녀는 객관적인 특성을 지닌 사랑할만한/미워할만한 대상인가, 아니면 스완의 사랑, 욕망에 의해서 상상적으로 구성된 존재에 지나지 않는가?)

*** 음악이 들려주는 스완의 사랑 이야기, 사랑과 그 표현**

스완의 사랑이 지닌 몇 가지 얼굴을 뱅퇴이유의 바이올린 소나타가 어떻게 형상화하는지, 사랑이 어떻게 예술적으로 표현되는 지를 살펴보자.

이상적인 관계 방식을 염두에 두면, 바이올린 소나타에서 바이올린과 피아노는 사이좋은 한 쌍이 되어서 자기와 타자의 상이한 통일, 각자의 개성이 사라지지 않은 연주로 자신들의 조화로운 관계를 표현하는 두 연인이 될 수 있고, 양자의 갈등과 긴장을 극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먼저 스완의 사랑이 지닌 신비한 본질을 알리는 소나타의 표현을 살펴보자.

"그러나 이 소악절은 스완이 그것에 귀 기울이자마자 금세 그에게서 소악절에 필요한 공간을 자유롭게 열어서 스완의 영혼의 균형에 변화가 일어나곤 하였다. (.....) 미지의 매력에 대한 목마름soif d'un charme inconnu, 그것을 이 소악절이 그의 마음속에 눈뜨게 했지만, 이 목마름을 채워줄 만한 뚜렷한 그 어떤 것도 가져다주지 않았다. 그래서 소악절이 물리적 이해나 걱정이 온갖 인간에게 가치 있는 인간적인 고려를 지워서 스완의 영혼의 그 부분을 텅 빈 채로 두어서, 거기에 자유롭게 오데뜨의 이름을 기입했다. 오데뜨의 애정이 약간 모자라거나 실망을 주는 듯한 느낌이라도 들면 소악절이 와서 그것을 더하고 그 신비한 본질essence mystérieuse을 혼합시켰다." (237-8/77/91-2)

소나타는 사랑의 "낯선 도취"를 표현하기도 한다. 사랑의 증인으로서 사랑이 연약함을 알리고 체념과 비애가 깃든 것임을 전한다. 하지만 스완은 그것에 귀기울기보다는 '입맞춤의 비'에 젖은 채로 달콤함에 몰두한다.

"그는 이 악절의 감미로움의 근저에서 고통스러움, 어쩌면 은밀하게 진정되지 못한 채 남아있는 고통까지도 알아차리기 시작했으나, 그것을 고통스러워하지는 않았다. 설사 그 악절이 사랑을 연약한fragile 것이라고 한들 개의하랴. 그의 사랑은 그처럼 강하였는데 fort! 그는 이 악절이 뿌리는 슬픔tristesse과 더불어 유희하고, 슬픔이 그의 마음을 지나가지만 그의 행복함을 더 깊게 더 달콤하게 하는 애무처럼 그 슬픔이 지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오데뜨에게 그 악절을 열 번, 스무 번 되풀이해서 연주시키면서 동시에 그에게 입맞춤을 계속할 것을 요구했다. 입맞춤 하나하나는 다른 입맞춤을 불러 온다. 사랑의 첫 무렵에 입맞춤은 얼마나 자연스럽게 생겨나는지! 그것은 서로 몸을 누르기만 해도 쏟아져 나온다. 한 시간 동안에 서로 주고받은 입맞춤은 5월의 들판에 핀 꽃들만큼 헤아릴 수도 없었다." (237/78/92-3)

하지만 사랑의 슬픔과 체념을 표현하는 음악은 그러한 행복이 연약한 것에 지나지 않음을 형상화한다. 그런데 사랑의 내용이 지닌 연약함과 그것에 대한 표현은 상이한 것이다. 전자가 시간 안에서만 존재하다가 시간 안에서 스러지고 사라지고 마는 것이라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

"마치 연주자들이 그 소악절을 연주 한다기보다는 그 소악절이 모습을 나타내는데 필요한 의례를 올리는 듯하였고, 또 혼을 불러내는 기적을 빌어 잠시 그 기적을 연장시키는데 필요한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보여서 (.....) 그 소악절은 그의 사랑의 속내 얘기를 들어주는 여신이 청중 앞에서 그의 곁에까지 이르러, 그를 외딴 곳으로 데리고 가서 이야기 하려고 그런 울림의 외관으로 변장했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소악절이 그에게 해야 할 말을 하면서 지나가자 그는 낱말 모두를 한 마디 한 마디 되씹으면서 꽃 향기처럼 가볍게 위로하고 소곤거리며 지나가는 동안, 그 낱말들이 그처럼 빨리 날아가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의식하지 못한 채 조화롭고 덧없이 사라지는 모습에 입술을 갖다 대고 입맞춤하는 시늉을 하였다. 이제 그는 홀로 유배되었다고 느끼지 않았다. 그에게 말 건네는 가락이 낮은 목소리로 오데뜨에 대해서 속삭이고 있었으므로. 악절은 전날처럼 오데뜨도 자기도 알지 못한다는 인상을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악절은 그토록 자주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있는 기쁨을 목격한 증인이었다! 그 악절은 또한 자주 두 사람의 사랑의 연약함 fragilité을 그에게 경고했다. 그 무렵에 소악절의 미소나 그 맑고도 투명한 억양에서 그는 고통이 어려 있음을 알아차렸는데, 지금은 마법에서 깨어나 오히려 거의 즐겁다고 할 체념une résignation presque gaie의 우아함grâce을 찾아냈다. 지난날 소악절이 그에게 얘기하던 비애chagrins (그는 소악절이 미소 지으면서 그 구불구불하고도 빠른 흐름으로 비애를 끌어들이는 것을 보면서 슬퍼하지 않았는데), 지금에는 그의 것이 되고 말아서 한시도 거기에서 벗어날 가망이

없다시피 된 그 비애에 대해서, 소악절은 예전의 행복에 대해서 말하듯이 그에게 말하는 것 같았다. "이게 다 뭐란 말인가? 이 모든 것은 아무 것도 아니지 않은가Tout cela n'est rien"라고."(347-8/237/274)

이런 예술적 진리는 사랑하는 자의 죽음조차 뛰어넘는다. 죽음에 의해서도 소멸되지 않는 이 진리는 어떤 시간을 정립하는가?

"우리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인질로 잡은 이 성스러운 포로들도 우리와 운명을 함께 하리라. 그러나 그들과 함께 하는 죽음이라면 죽음도 덜 쓰라리고de moins amer, 덜 부끄럽고de moins inglorieux, 아마도 덜 개연적인de moins probable 것이 되리라."(350/240/278)

스완은 사랑의 진리를 표현하는 소나타에 공감한다. 그 소나타가 자아내는 감정을 따라 가면서 사랑의 연약함을 인식한다. 그러나 음악이 감싸는 사랑하는 시간은 깊은 공감과 함께 사라진다. 그러면 사랑의 경험은 특정한 시작과 과정과 끝에 갇혀 있다가 그 경과와 함께 사라지면서 기억 속의 존재, 회상의 대상이 될 뿐인가? 그는 지나가는 시간을 포착하는 법을 모르고 사랑에 몰두하거나 실망할 뿐 어떠한 시도도 하지 않는다.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예술적 표현(예술의 영역에서 예술적 시간에 따라 존재하는 사랑)은 죽음을 넘어선다, 예술은 삶과 죽음, 사랑의 허약함, 변천과 질투를 넘어선 '고유한' 시간의 세계를 정립한다. 그러면 사랑은 더 이상 시간 안에서 변하고 스러지는 것이길 멈추고 표현된 시간과 함께 자신의 생명을 새로운 시간에서 펼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사랑을 표현하는 베토벤의 소나타, 사랑은 지나가지만 그 사랑(의 기쁨과 고통, 사랑의 정감을 형상화한)을 노래한 소나타는 무한하게 반복되면서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작품 속에 형상화되고 객관화된 사랑은 어떤 시간도 무너뜨릴 수 없는 고유한 세계를 빚어낸다.

"마지막 악장 도입부에서 스완이 들은 피아노와 바이올린의 아름다운 대화! (.....) 먼저 외로운 피아노가 배우자에게 버림받은 새처럼 탄식한다. 이 소리를 들은 바이올린이 이웃나무에서 말 걸듯이 그 소리에 응답한다. 그것은 세계의 시초인 듯, 지상엔 아직 그 둘 밖에 없는 듯했다. 아니 차라리 다른 모든 것에 닫힌 이 세계는 한 창조자의 논리에 따라서 지어져서, 앞으로는 절대로 이 둘 밖에 거기에, 이 소나타에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았다.

그건 한 마리 새인가? 소악절의 미처 완성되지 않은 넋인가? 요정이던가? 그 눈에 보이지 않고 invisible 신음하는gémissant 소리, 그 탄식에 뒤이어 피아노가 부드럽게 되풀이한 이 존재는? 피아노의 외침이 어찌나 갑작스러웠는지 바이올리니스트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재빠르게 활을 그어야 했다. 놀라운 새로다! 바이올리니스트는 새를 홀리고, 길들이고, 붙잡고 싶은 듯 했다. 벌써 새는 바이올리니스트의 넋 속에 날아들어 이미 불러일으킨 소악절이 강신자(降神者)의 몸을 흔들어 대듯이 정말로 사로잡힌 바이올리니스트의 몸을 흔들어 댔다." (351-2/242-3/280-1)

예술로 표현된 사랑의 진리는 사랑의 경험에서 소진되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그 진리는 스완의 질투와 고통을 가로지르면서 경험적 시간을 뛰어넘는다. 스완의 사랑은 그런 진리가 시간화되는 경험의 장을 펼친다.

스완의 사랑은 이런 예술적 진리와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게 한다. 스완의 사랑 경험에서 멈출 것인가? 사랑을 넘어선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프루스트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는 것'을 문학의 고유한 과제라고 본다. 글쓰기는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으려는 시도이다. 그런 시간에서 존재하는 (숨 쉬고 행복과 미움에 휩쓸리고 안타까움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랑은 환멸과 죽음마저도 넘어선다.

참고문헌

Proust, M., A la recherche du temps perdu, t. 1, Editions Gallimard: Paris, 1954.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스완네 집 쪽으로 2, 김창석 옮김. 국일 미디어, 1998.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스완네 집 쪽으로 2, 김희영 옮김. 민음사 2012.